

## 생생리포트 102

#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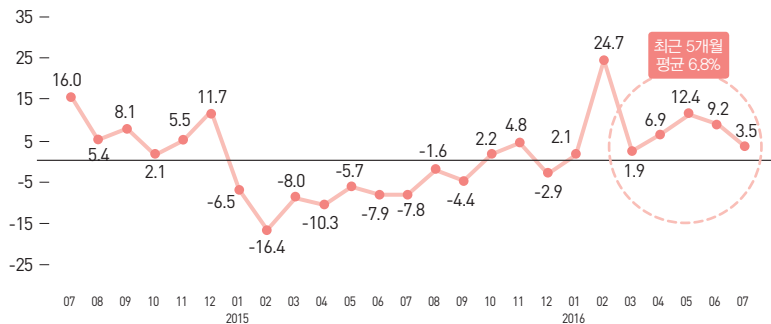
\* 본 생생리포트는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18호 보고서입니다.

##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서울의 산업생산,  
내수, 고용은  
모두 동반 상승

2016년 7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증가세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2016년 들어 7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
  - 2016년 7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3.5% 증가하는 등 최근 5개월은 전년 동월보다 평균 6.8%가 성장
  - 최근 5개월 중 5월이 12.4%로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
  - 2015년 말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중이던 전국 제조업의 산업생산지수도 전년 7월보다 1.7% 성장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
- 부문별로는 자본재가 17.5%로 5월(31.5%), 6월(24.9%)에 이어 크게 증가
  - 중간재 역시 5.0%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소비재는 4.8% 감소
  - 최근 5개월 기준으로 자본재(15.9%)와 중간재(11.7%)는 1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반면, 소비재는 0.5% 증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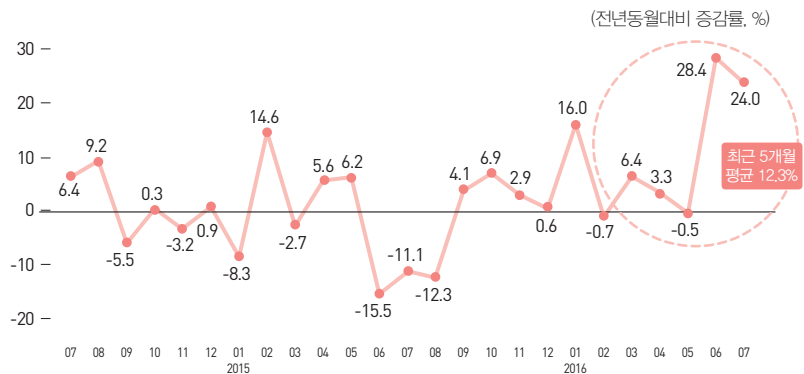
①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수정될 수 있음.  
매년 1월분 통계 공표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sup>①</sup>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증감률(제조업)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월에 전년 대비 24.0% 성장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6년 7월 전년 동월보다 24.0% 성장하는 등 최근 5개월간 평균 12.3% 증가
  - 작년 7월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
- 최근 5개월간 백화점 판매액은 평균 3.3%, 대형마트 판매액은 평균 21.5% 증가
  - 대형마트 판매액은 6월 44.9%, 7월 42.9%로 2개월 연속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백화점 판매액도 전년 동월보다 각각 12.4%, 6.1% 증가
  - 2016년 「대형소매점 판매액」의 성장에는 대형소매점 증가율도 작용하였으나 대형마트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sup>②</sup>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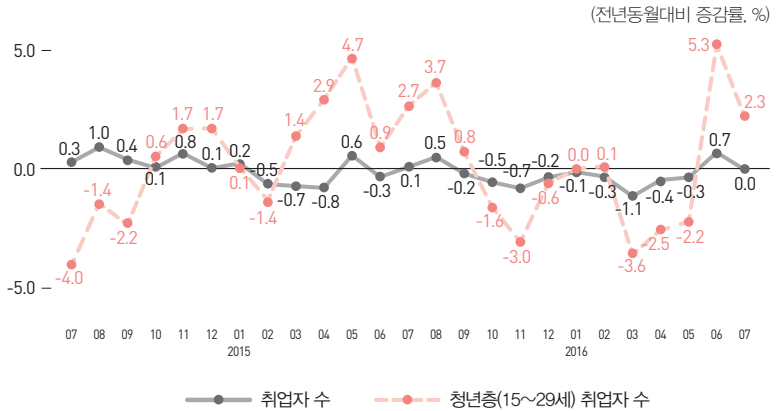
②

최근 2개월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수정될 수 있음.  
매년 1월분 통계 공표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 전체 「취업자 수」는 유지, 청년층은 2개월 연속 증가

- 2016년 7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과 같은 517만 명
  - 「취업자 수」의 증감률은 6월에 0.7%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으나, 7월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8만 8천여 명)보다 2만여 명 증가한 90만 8천여 명으로, 2.3%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
  -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5월 3개월간 전년 동기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6월과 7월에 두 달 연속 증가하며 반등하는 추세
  - 대기업의 하반기 신규채용 기간과 맞물려 청년층의 취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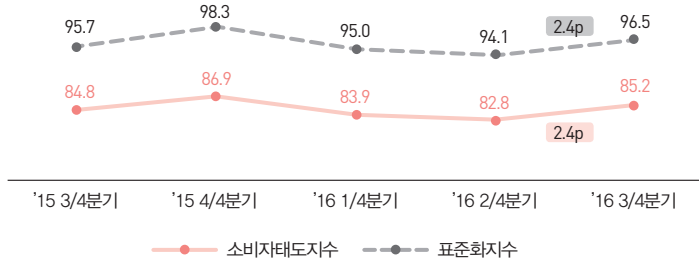
## Ⅱ.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 2016년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는 3분기 만에 호전

③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 별로 시계열 조사되는 결과값이 성별, 가구수, 직업 등의 인구 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표준화한 값을 구한다.

### 서울의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상승

- 2016년 3/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sup>③</sup> 기준 96.5로 전(前) 분기보다 2.4p 상승
  - 2016년 1/4분기, 2/4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나 3/4분기에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
- 여름휴가, 추석특수 등에 힘입어 상반기의 하락세를 딛고 상승세로 반전
  - 긴 추석 연휴로 인해 공항철도 일평균 이용객이 지난 추석연휴보다 31% 증가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도 연휴기간 97만여 명으로 역대 명절 연휴 중 최다 기록
  - 한국은행의 심리지표인 장기평균치(2003.1.~2015.12.)도 기준 값인 100 이상으로 조사되어 장기평균도 낙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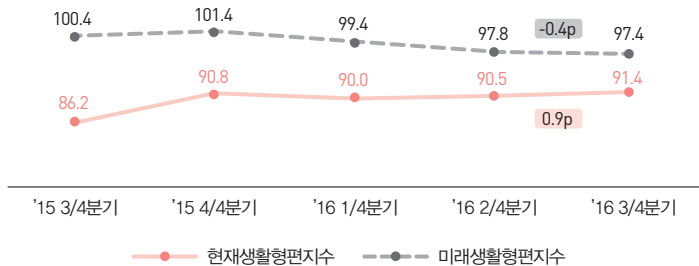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상승하였으나 미래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은 하락

- 2016년 3/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9p 증가한 91.4이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7.4로 전 분기보다 0.4p 감소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분기 연속 상승하며 최근 1년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
- 반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7.4로 전 분기보다 0.4p 하락하여 최근 3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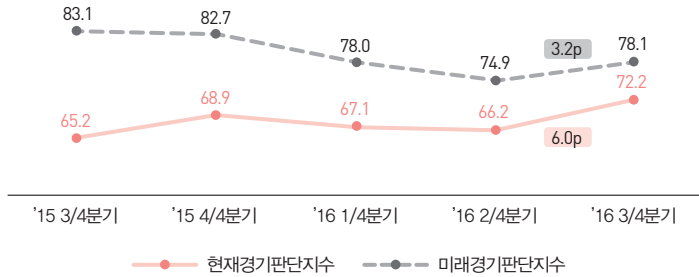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 서울의 현재경기 및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 상승

- 2016년 3/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6.0p 상승한 72.2를 기록
- 지난 2분기는 연속 하락하였으나 2016년 들어 처음으로 상승하였으며, 상승폭도 6.0p로 비교적 큰 편
- 2016년 3/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도 78.1로 전 분기보다 3.2p 상승
- 3분기 연속 하락하였던 「미래경기판단지수」도 상승세로 돌아서 하

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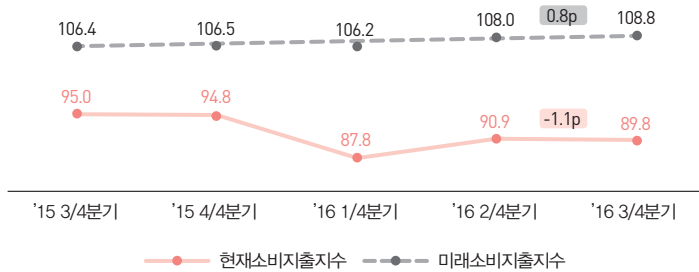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6〉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 서울의 현재 소비는 소폭 상승, 미래 소비는 소폭 하락

- 2016년 3/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8.8로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0.8p 증가하며 2분기 연속 상승
- 그러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9.8로 전 분기보다 1.1p 하락하였으며, 전년도 동기(95.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전 분기 반등에 성공했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 현재 다소 개선된 소비지출 심리가 다시 위축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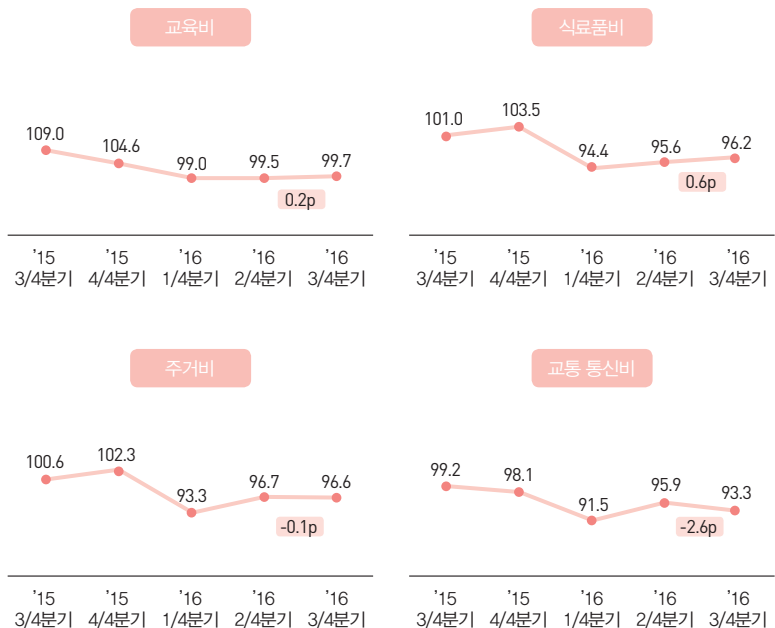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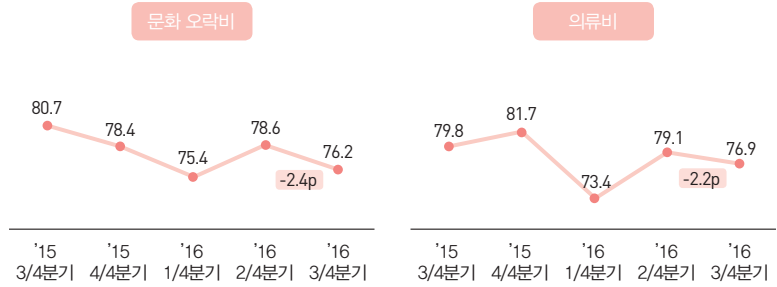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7〉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미래소비지출은 식료품비와 교육비만 전 분기보다 상승

- ‘교육비’는 전 분기보다 0.2p 상승한 99.7, ‘식료품비’는 0.6p 상승한 96.2를 기록
  - ‘교육비’는 2분기 연속 상승하여 기준치(100)에 근접
- 그 외 ‘교통/통신비’, ‘문화오락비’, ‘주거비’, ‘의류비’는 모두 지난 분기보다 하락
  - ‘교통/통신비’가 -2.6p로 가장 크게 하락한 가운데, ‘문화오락비’(-2.4p), ‘의류비’(-2.2p)도 비슷하게 하락
  - 주거비는 0.1p 하락에 그쳐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의류비’와 ‘문화오락비’는 여전히 다른 지수들에 비해 낮은 편
  - ‘교육비’,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통신비’는 모두 90대 중반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의류비’와 ‘문화오락비’는 이보다 한참 낮은 70대 중반 수준
  - ‘의류비’와 ‘문화오락비’ 지수가 꾸준히 큰 격차를 보이며 낮은 것은 서울시민이 여전히 교육, 주거 등 필수 생활 관련 소비지출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16년 들어 기준치 100을 웃도는 품목은 전무
  - 3/4분기 소비지출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보이나, 2015년에 기준치 100을 웃도는 품목이 많았던 것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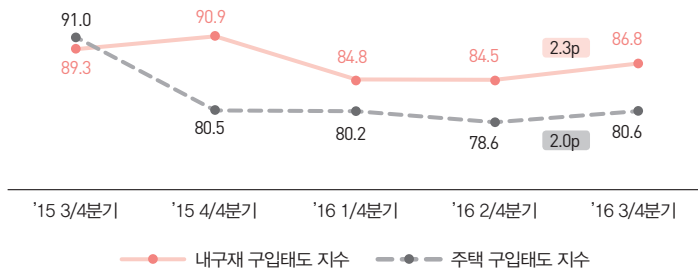




〈그림 8〉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과 주택구입 의사는 모두 상승

- 2016년 3/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2.3p 상승한 86.8
  - 2016년 들어 2분기 연속 하락하였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처음으로 반등
- 「주택 구입태도지수」도 전 분기보다 2.0p 상승하며 6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
  -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2015년 3/4분기까지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보다 높았으나 2015년 4/4분기부터 4분기 연속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를 하회
  - 지수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80대에 머무르는 등 내구재구입과 주택구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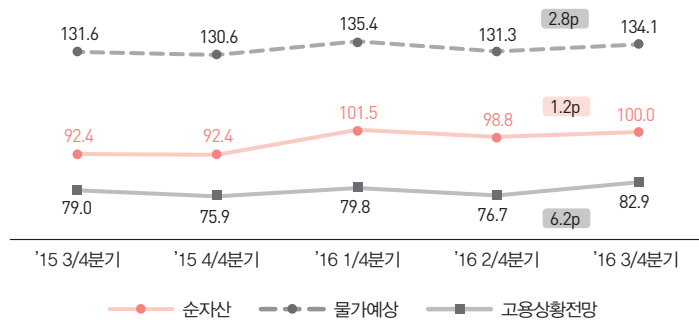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 3가지 지수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고용상황전망이 큰 폭으로 상승

- 2016년 3/4분기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반전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82.9로 전 분기보다 6.2p의 큰 폭 상승을 기록
  - 「물가예상지수」도 2.8p 상승한 134.1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2.5p 높은 수치
  - 「순자산지수」는 100.0으로 지난 분기보다 1.2p 증가하여 기준치 100을 회복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5년 이래 최고치 기록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5년 이래 처음으로 80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하반기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판단



〈그림 10〉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 Ⅲ. 서울시민의 관심 경제 이슈: 가정용 전기 누진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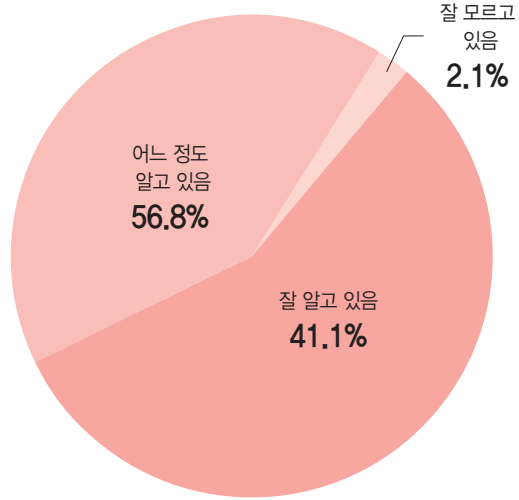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해 대부분이 인지

-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97.9%로 절대적
- ‘잘 모른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하여 10명 중 9명 이상이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해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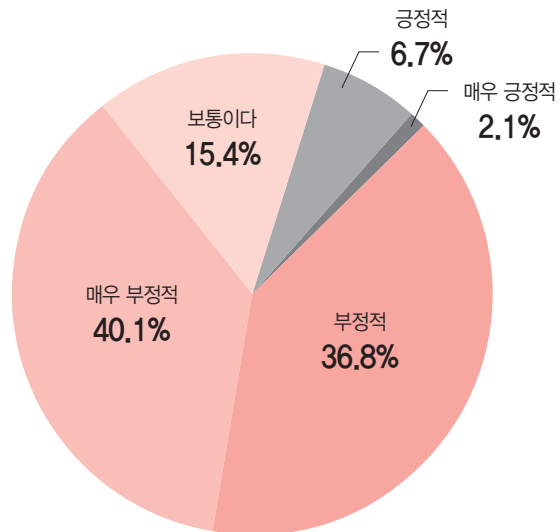


###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해서는 76.9%가 부정적으로 인식

- 신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통이란 응답은 15.4%, 긍정적인 인식은 7.7%에 불과
-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대에 뒤 떨어지는 제도’라는 의견이 61.1%로 가장 높게 조사



〈그림 11〉 가정용 전기 누진제 인지 여부



〈그림 12〉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한 인식

### 전년 대비 냉방기구 사용량이 크게 늘었으며, 누진제가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

- 전년 여름철 대비 냉방기구 사용량이 늘었다는 의견이 78.1%로 나타났으며, 줄었다는 의견은 4.7%에 불과
  - 냉방기구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는 '작년에 비해 폭염이 심해서'가 93.4%로 대부분
  - 감소한 이유는 '누진제 적용으로 전기세가 부담스러워서'가 65.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서'(27.9%) 등의 순
- 가정용 전기 누진제가 가정소비지출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77.1%
  - 가정용 전기 누진제의 구간 소급적용이 전기요금 감량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32.6%)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44.0%)이 우위

### 누진제 개편을 위한 개선 방안 중 '누진제 축소'를 선호

- 누진제 개편을 위한 방안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누진제 구간 축소(현행 6단계 구간을 3단계로 줄이는 방안)'가 58.0%로 절반 이상
  - 그다음은 '저소득층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제도(18.3%)', '연료비 연동제(17.2%)' 등의 순



〈그림 13〉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편 방안<sup>4)</sup>

<sup>4)</sup>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 대상 설문조사